

방사청이 장비도입처 변경, 납기지체뎀 방산업체에 벌금

위기의 방위산업

(中) 책임만 지고 병드는 방산업체

무리한 기술 변경 요구에 늦었는데 R&D 사업비의 2배 벌금으로 물어 혹독한 감사에 연구원 목숨 끊기도

“방위산업 비리는 없다. 다만, 방산 시스템의 결함이 있을 뿐” 다수의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방산비리로 구속된 책임자들의 약 50%가 무죄판결을 받는 현실에 분개한다. 적기에 전력화가 실패하고 무기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문제일까?

◆정부기관은 자기자리만, 책임은 업체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방산비리 수사의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한다”며 “국내 방산업체는 원가 검증까지 받아가며 감사와 관리의 대상이 돼 있다. 반면 대부분의 비리가 해외무기 도입에서 발생하는데 수사는 국내 방산업체를 겨냥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감사·감독 공무원 숫자가 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비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육군의 최신 전차인 K-2(흑표)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체계통합업체라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흑표전차 전력화 2차분을 놓고 핵심장비인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등)’을 당초 계획된 독일제에서 국산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파워팩

이 결함을 보여 흑표 전차의 2차 전력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현행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국계법)과 판례를 들어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로템에게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이 방사청에 내야할 지체상금은 1700여 정도로 추산된다. 본지 확인 결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는 엔진과 변속기만 장착하면 출고가 가능한 흑표 전차가 59대가 있다.

지체상금과 관련해 현대 로템측에 문의했지만, 현대 로템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방사청은 관계 법령 등 관례상 체계통합 업체인 현대 로템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차 수정계약서에 지체상금 면제된 제출을 넣는 것에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 입장처럼 관례대로라면, 현대 로템이 지체상금을 면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방산업 현실은 보지않고 실적에만 급급
상한선 없는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와 정부의 무리한 요구 변경도 국내 방산업체가 떠안은 ‘원죄’다.

2015년 대전차 무기 현공을 개발한 LG 넥스윈의 연구원 3명은 방산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받았다.

하지만 그 중 한 명은 혹독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감사원은 개발 현장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하청업체의 사소한 실수를 이

유로 방산비리로 몰아갔다. 짧은 개발기간 동안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국내 방위사업 특성상, 하청업체가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재할용을 금지한 발사관을 재할용했던 것이다.

발사관의 재할용이 개발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고, 하청업체도 원가가 절감된 분만큼을 산정해 납품금액을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납품원가를 부풀렸다고 방산비리로 몰아갔던 것이다.

최근 LIG 넥스윈은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십 차례 전문가 기술 검토 및 군사요구도(ROC) 변경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2016년 완료된 사업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요청에 따라 왔던 것인데, ADD는 LIG 넥스윈의 소명절차도 없이 연구개발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66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정부 기관의 정책은 엉망인데, 관례에 따라 책임만 지는 방산업체들의 피해사례는 이 밖에도 무수하다. 때문에 방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선 “법만 아니면 방산 따위 때려치고 싶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ain@metroseoul.co.kr

LG화학 비화학사업 호조 ‘선방’

롯데케미칼 순수화학 정조준 ‘주춤’

희비 엇갈린 화학업계 ‘빅2’

국내 화학업체 ‘빅2’로 우뚝선 롯데케미칼과 LG화학의 극명하게 갈린 성장 전략이 눈길을 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 사업에 집중하는 반면, LG화학은 유화사업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업, 농업·바이오 사업 등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순수화학과 관련한 사업 비중이 크다. 대표적으로 여수공장과 미국 루이지애나 에탄올 크래커 공장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2500억원을 투입해 여수 NCC 증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에탄올 분해 시설을 짓는 중이다. 오는 2021년까지 화학부문 투자액만 2조2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LG화학은 비화학사업에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호황을 누리면서 전지 사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양상이다.

최근 LG화학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중국 남경에 전기차 배터리 2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해당 공장은 6만평 부지에 지상 3층으로 지어진다. LG화학은 공장에 오는 2023년까지 2조1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5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LG화학은 국내 공장을 포함해 미국과 폴란드, 중국까지 총 5개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체제를 갖췄다.

양사의 상반된 사업 결과 LG화학은 롯데케미칼과의 영업이익 격차를

더 늘리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LG화학은 6024억원, 롯데케미칼은 5036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롯데케미칼이 LG화학을 제치고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1015억원의 영업이익 더 거뒀지만 올해 2분기부터 LG화학이 비화학사업 호조에 힘입어 롯데케미칼을 추월하기 시작한 것이다.

4분기 또한 3분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적이 전망된다. 우선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료가격 또한 오르면서 화학업계의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희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은 4분기 무역분쟁 우려 심화에 따른 전방업체 수요 부진 영향으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증설된 공장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LG화학도 3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 기초소재 부문에서 손해가 지속되는 반면 전지 매출이 확대되면서 불황을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영업이익 감소는 기초소재 부문에 기인한다”면서도 “정보전자소재 부문이 흑자로 전환하고 전지부문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기초소재 부진을 만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는 여수 NCC 정기보수 및 스프레드 추가약제로 감익이 예상된다”면서도 “자동차 전지 손익분기점 달성으로 추가 성장에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왼쪽부터)현대뷰 메이크업 시연 서비스, 현대IT&E VR 시나미,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랜드 오픈.

/손진영 기자 son@현대백화점그룹

영토 넓히는 정지선... 현대백 신사업 가속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속원사업 면세점 도전장... ‘순항’
리테일테크 도입 소비자 호응 ↑
한화L&C 인수 리빙사업군 강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리테일테크’를 도입하는가 하면, 앞서 1일에는 정 회장의 속원사업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오픈했다. 이밖에 그룹 내 렌탈 사업과 가구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했다.

미래사업본부는 미래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모색한다. ▲미래MD 및 R&D 담당 ▲콘텐츠 개발 담당 ▲신규점 프로젝트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이 조직들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협력 체제로 운영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사업 구조나 경쟁력으로는 미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사업본부 같은 핵심 조직이 필요했다”고 조직 탄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미래사업본부를 통해 미래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유통에 정보통신기술(IC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T)을 접목하는 ‘리테일테크(Retailtech)’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중국 뷰티 관련 스마트폰 앱(어플) 개발 전문기업인 ‘메이투’와 제휴를 맺고, 공식 온라인 쇼핑몰 ‘더현대닷컴’에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온라인몰에 증강현실을 이용한 메이크업 시연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현대백화점이 처음이다.

‘가상 메이크업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들은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더현대닷컴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몰이 중이다. 더현대닷컴이 2016년 오픈한 ‘VR스토어’는 오픈 당시 이용 고객이 3000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1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룹 내 IT 전문 기업인 현대IT&E는 연내 오픈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의 VR 테마파크 ‘VR 스테이

션’에 최고급 사양의 ‘VR 시나미’를 운영한다.

‘VR 시나미’는 16석 규모로 VR과 4D X를 접목시킨 VR 전용 영화관으로, 삼성전자에서 출시 예정인 VR 전용 헤드셋 기기 ‘오딧세이 플러스(+)’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4D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CJ의 4DPLEX가 개발한 ‘4DX 스웨이앤트위스트(Sway&Twist) 모션체어’를 VR 영화관에 최초로 적용한다.

1일 오픈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순항 중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10층까지 총 3개층에 특면적 기준 1만 4250㎡(약 4311평) 규모로 들어섰다. 인지도 높은 국내외 브랜드 420여개가 입점했으며, 무엇보다 9층 ‘뷰티&패션관’에는 차별화된 디지털 미디어 체험 공간이 있어 고객의 관심을 끈다. 고객의 피부타입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LG생활건강 통합관’, 슈에무라·랑콤 등 로레알그룹의 메이크업 브랜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메이크업 스튜디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을 통해 한화L&C 지분 100%를 인수, 건자재 시장으로 사업영토를 넓히며 리빙사업군을 강화했다.

사측은 이번 합병을 통해 유통(백화점·홈쇼핑·이올렛·면세점)과 패션(한섬·현대G&F·한섬글로벌) 부문에 이어 리빙·인테리어 부문을 그룹의 3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